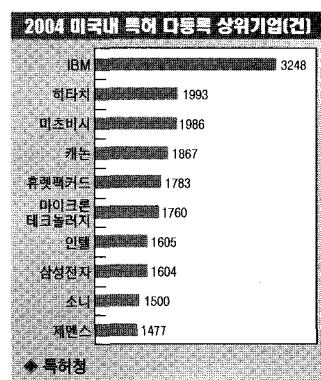


한국, 미국내 특허 출원 세계 4위 기록

최근 우리나라의 미국 내 특허 출원 및 등록이 반도체, 전자, 통신,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국제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특허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외국인 특허 다출원 국가 순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일본(4만6천2백67건), 대만(1만3천1백29건), 독일(1만1천9백4건)에 이어 세계 4위(9천7백30건)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는 캐나다(6천7백5건), 영국(5천13건)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해 국가별 출원순위에 있어 우리나라는 2003년도와 동일한 제4위를 유지하였으나, 일본, 독일 등 10위권 내 모든 국가들의 특허 출원 건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데 비해, 한국은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여 R&D 활동 강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미국 내 특허 다등록기업(기관) 순위에서는 우리나라 10개 기업들이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순위가 높아지면서 3백대 기업에 포함되었다. 특히 삼성전자는 1천6백4건의 특허를 등록하

여 2003년 13위(1천3백13건)에서 8위로 5단계 뛰어 올랐으며, LG전자는 48위에서 41위로, 하이닉스는 78위에서 59위로 현대자동차는 161위에서 153위로 뛰어 올랐다. 3백대 기업에 포함된 기술 분야는 주로 반도체, 전자, 통신, 자동차 분야로서 이들 분야가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2007년 까지 '지식재산 세계 6강'을 목표로 관계부처와의 협조 하에 각종 지재권 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 정부 지원과제 평가 시 특허출원·등록·실시권 허여 여부 평가 등 R&D의 산업적 활용촉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LG 그룹 '특허 인력' 두배로 늘린다

LG 그룹이 글로벌 특허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변리사 등 특허전문인력을 오는 2007년까지 두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 계열사인 LG 전자인 현재 2천건에 머무르고 있는 미국 내 특허 출원 수를 2010년까지 5천건으로 늘려 '글로벌 텁3'를 달성할 계획이다.

LG 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룹이 전자·화학 중심의 초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원천기술의 확보가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판단, 최근 주요 계열사별로 CEO 주재 회의를 갖고 2010년 이전 특허경쟁력 글로벌 텁3라는 목표를 정하고 세부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의 주요 계열사들은 해외 지역별 전문가 등 특허전문 인력 강화, 해외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대폭 확대, 신기술에 대한 글로벌 기술 표준 확보 지원에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LG 전자는 우선 현재 1백50여 명의 특허 전담인력을 2007년까지 2백50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주요 지역별로 특허거점을 구축해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고 특허 개발·라이선싱·소송 등 업무별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키울 예정이다.

국내·외 특허출원을 확대해 '특허강자'로 도약하겠다는 LG 그룹의 청사진도 제시됐다. LG 전자는 미국에서 현재 2천건에 이르는 특

허출원 수를 2010년에는 5천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 지역에서는 현재 1천2백여선인 특허 출원 수를 2010년까지 3배 가까이에 이르는 3천5백건으로, 중국에서는 '님버원' 수준의 지적재산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내·외에서 매년 2천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LG 필립스 LCD는 매년 미국에서 획득하는 특허 수를 2백건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LG는 이와 함께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특허전략만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고 계열사별로 R&D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기록 잘 하니 아이디어와 특허 쌓이네

대전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대형 작업작용 사다리인 비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한발에서는 '기록'이 생명이다. 사장부터 시작해 전 직원 30명이 모두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해야만 퇴근할 수 있다.

한발의 전직원은 매일 지시받은 업무가 무엇인지, 해당 업무가 회사에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기록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적은 후, 오늘 한 일이 개인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전 직원이 작성한 '일기'는 그날 즉시 컴퓨터에 전산 입력되고 사장 결재까지 이뤄진다.

'98년 설립된 이후 매일 쓴 일기가 경험으로 쌓이면서 직원들이 따낸 특허만 16개, 30명 전 직원 가운데 2명이 한 개꼴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출원 중인 특허까지 합치면 80개가 넘는다.

백수곤 대표는 '블록 비계 관련 초기 특허 3개만 사장이 아이디어를 냈고 나머지는 일기쓰기 등을

통해 경험이 쌓이면서 직원들이 낸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표는 '업무일지 작성 통해 전 직원이 스스로 하루를 반성하는 계기를 갖는다'며 '업무일지 작성 통해 회사가 개인을 평가하기 보다는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회를 준다'고 전했다.

또한 백 대표는 '직원들 아이디어가 쌓여가면서 회사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2백 억원 매출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침해소송 우선심판 처리절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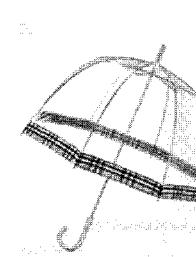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침해소송과 관련된 우선심판 사건의 처리절차를 개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심판청구(심판사무취급 규정 제31조 제1항)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우선심판 처리절차에 있어서 보정각하 결정사건, 심결취소사건, 심사관 청구 직권무효 심판사건, 법원의 통보에 의한 침해소송사건의 경우 우선심판 결정통지 없이 우선하여 심리·심결을 하고 있다.

또한 보정각하 결정사건, 심결취소사건, 심사관 청구 직권무효 심판사건의 경우는 사안이 명백하거나 이미 당사자가 분쟁의 결과를 알고 있는 사건으로 우선심판 결정통지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커플 우산 등 기능성 우산 출원 급증



최근 사용자의 편의나 실용성을 강조한 기능성 우산에 관한 출원이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다. 우산과 관련된 출원의 주된 기술 분야로는 크게 우산살의 재료 및 구조, 우산을 접고 펴는 장치, 그 외 특수기능을 갖는 우산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우산살의 재료로는 일반 절점재질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습기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며, 유연성과 더불어 강성을 부여하기 위해 금속재질로서 알루미늄, 특수재료로서 유리섬유, 탄소섬유, 일반 합성섬유 등을 함유하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등의 재료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우산을 접고 펴는 장치로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으로 펴지는 우산 외에 자동으로 접히는 우산, 우산의 개폐시 손가락으로 누르게 되는 버튼이나 걸림장치를 개량하여 보다 쉽고 안전하게 우산이 개폐되도록 하는 장치 등이 있다.

또한 특수기능을 갖는 우산도 눈에 띄고 있다. 비오는 날 밤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발광 또는 조명장치가 우산대나 손잡이에 내장된 우산, 손잡이부에 돌기부를 설치하여 우산을 사용 시 지압 효과를 주는 우산, 우산 2개를 결합한 듯 보이는 타원형의 2인용 우산, 우산 사용 후 실내나 대중교통에서 타인의 빗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빗물받이 또는 케이스가 내장된 우산 등이 있다. 그리고 우산과는 별개로 백화점이나 공공건물에서 고객의 편의나 시설물의 청결을 위한 여러 형태의 우산 탈수기 등도 있다.

지 / 면 / 안 / 내

3 간편해진 등록세·수수료 납부로 민원 불편 해소

4 한국특허정보원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5 암티 바이러스 특허, 국내 중소기업이 주도

6 특허청,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지식재산 협력 업무협정 체결

9 인물 FOCUS · '2005 여성특허기술대전' 수상자들

10 영주 교육청 발명공작교실

12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13 전세계 출기세포 특허 신청 급증

14 버버리풀, 샤넬스타일 등 명품 인용 광고 못한다